

# 보건복지 ISSUE & FOCUS

**KIHASA**  
한국보건사회연구원  
Korea Institute for  
Health and Social Affairs  
www.kihasa.re.kr

제350호 (2018-06)  
발행일 2018. 06. 25.  
ISSN 2092-7117

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(30147)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(1~5층) TEL 044)287-8000 FAX 044)287-8052

## 시·군·구 지역 출산율과 신혼부부 비율



이상림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

이지혜 인구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

-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 참여, 지방 인구 감소, 지방 분권화 등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별 출산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, 이에 대한 논의는 지자체 합계출산율의 단순 비교에 그치는 실정임.
- 우리나라 전체 출산 중 혼인 기간 5년 이하 신혼부부의 출산 비율이 매우 높으며, 지역 출산현상에서도 신혼부부 비율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.
- 실제 지역별로 주 출산연령 여성 인구 중 신혼부부 여성의 비율을 표준화하여 시·군·구별 합계출산율을 산출해 보면 지역별 편차가 크게 감소하고 큰 폭의 순위 변동이 나타남.
- 이는 우리나라 지역 출산에서 신혼부부의 비율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 주는데, 신혼부부의 분포는 주거 및 일자리 등 지자체 정책 범위를 넘어서는 구조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됨.
- 지역 단위 출산을 살펴볼 때에는 신혼부부 비율 등과 같은 지역의 인구학적 맥락을 반영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, 더불어 지역의 출산 정책은 지역(지방)의 종합적 발전을 고려한 인구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.

### 1. 들어가며

- 최근 저출산 관련 정책 확대와 소위 '지방 소멸' 등과 같은 지역 인구 변동에 대한 위기 인식에 따라 지역의 출산율 수준 및 지역 간 출산력 차이에 대한 사회적·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- 지역의 출산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많은 정책 및 언론의 접근은 지자체별 합계출산율의 단순 비교를 통한 순위 매기기에 그치고 있으며, 높은 지자체 출산율의 원인 역시 정책 지원의 결과로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음.
- 그런데 지역별 인구구성 및 인구동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출산율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며,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시·군·구별 신혼부부<sup>1)</sup> 비율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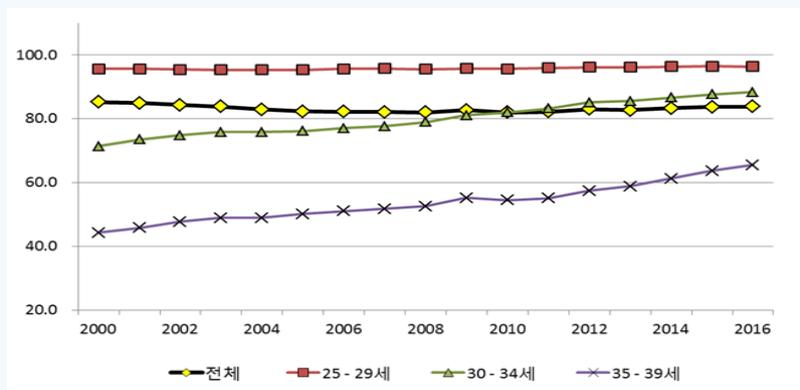
1) 이 글에서 신혼부부는 통계청의 '신혼부부 통계' 정의와 동일하게 '혼인 기간 5년 이하'의 부부를 의미함.

## 2. 우리나라 신혼부부 출산의 특성

- 우리나라 출산의 대부분(80% 이상)은 혼인 기간 5년 이하 신혼부부의 출산으로 이뤄지고 있으며, 이러한 경향은 지난 15년간 계속되어 온 현상.
  - 특히 20대 후반 출산은 거의 대부분이 혼인 기간 5년 이하인 여성에게서 나타났으며, 핵심 출산 인구인 30대 초반 여성에게서도 혼인 연령의 증가에 따라 그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남.
- 이렇게 신혼부부 출산 비율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 출산의 대부분(90.3%)이 첫째아 및 둘째아 출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(통계청, 2015년 출산통계).
  - 전체 신혼부부 출산 중 약 95.7%는 첫째아 또는 둘째아였으며, 전체 출산에서 9.7%를 차지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 중 62.1%는 혼인 기간 6년차 이후에 태어난 경우임.
  - 난임 등의 이유로 혼인 이후 늦은 출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나지만, 전체 신혼부부 출산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임.
    - 전체 출산 중 신혼부부 출산의 비율: 2000년 85.2% → 2016년 83.8%(통계청, 출생통계)

[그림 1] 전체 출산 중 신혼부부 출산의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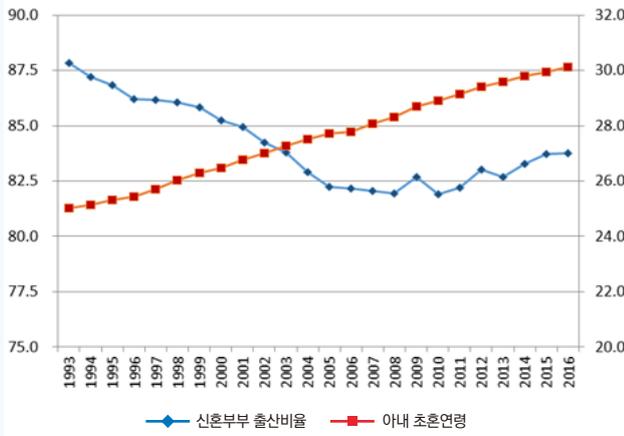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주: 연령 구분은 부부 중 부인 연령을 기준으로 함.  
 자료: 통계청.(각 연도), 출생통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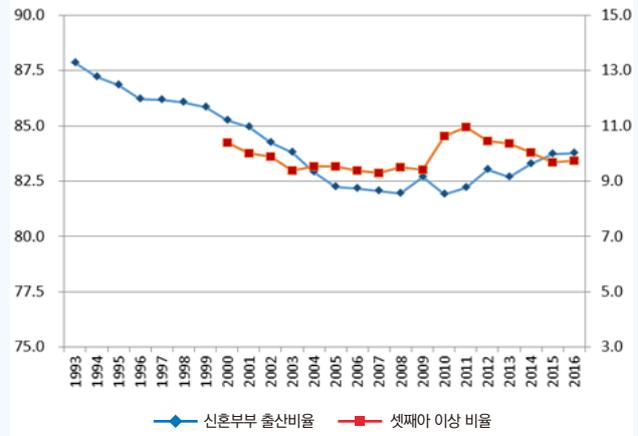
- 이상과 같이 신혼부부 출산 비율이 높은 것은 최근 대부분의 여성이 1~2명의 자녀로 출산을 종결하고, 초혼 연령 상승으로 자녀 터울 조절의 여지가 줄어들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되기 쉽지만, 실제 출산 동태는 이와 다른 패턴을 보여 줌(그림 2, 그림 3).
  -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 출산 비율은 199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0년에 이르러 다소 상승하였지만 현재까지도 1990년대 초반 수준에 크게 못 미침.
  - 특히 역(-)관계를 보여야 할 신혼부부 출산 비율과 셋째 이상 출생아의 비율은 오히려 정(+)관계에 가까운 변화 양상을 보임.
  - 이와 같이 혼인 기간에 대한 출산 밀도는 전반적인 출산 동태와는 별개의 독립적 인구 현상으로, 출산 관련 인구동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임.

[그림 2] 신혼부부 출산 비율과 여성 초혼연령 변화



자료: 통계청.(각 연도), 출생통계.

[그림 3] 신혼부부 출산 비율과 셋째아 이상 비율



자료: 통계청.(각 연도), 출생통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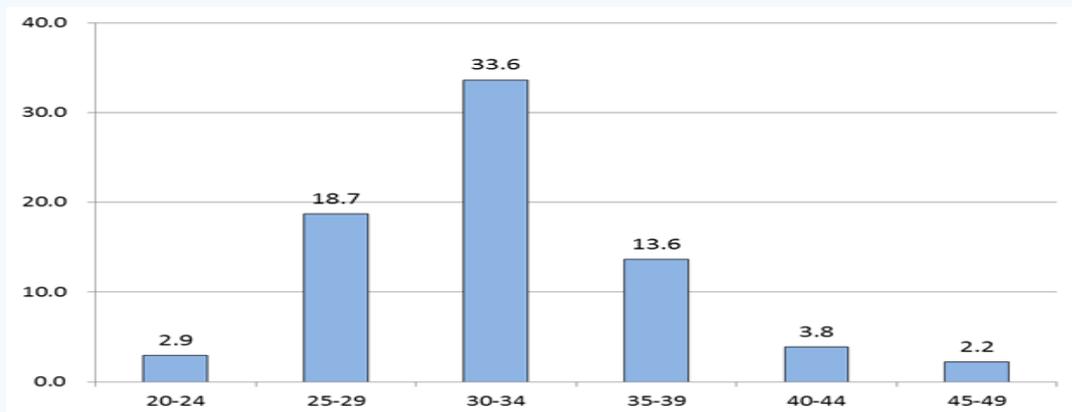
### 3.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분포

■ 이 글에서는 주 출산연령대인 25~39세 여성 인구 중 혼인 기간 5년 이하의 신혼부부 비율을 산출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았음.<sup>2)</sup>

○ 2015년 신혼부부 통계에서 신혼부부 여성의 연령 구성은 30대 초반을 정점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, 24세 이하 및 40세 이상 여성은 약 8.9%를 차지함.

○ 이러한 분포는 전체 출산에서 산모의 연령 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 줌.

[그림 4] 혼인 기간 5년 이하 신혼부부 여성의 연령집단 내 비율



주: 1) 외국 국적 여성 제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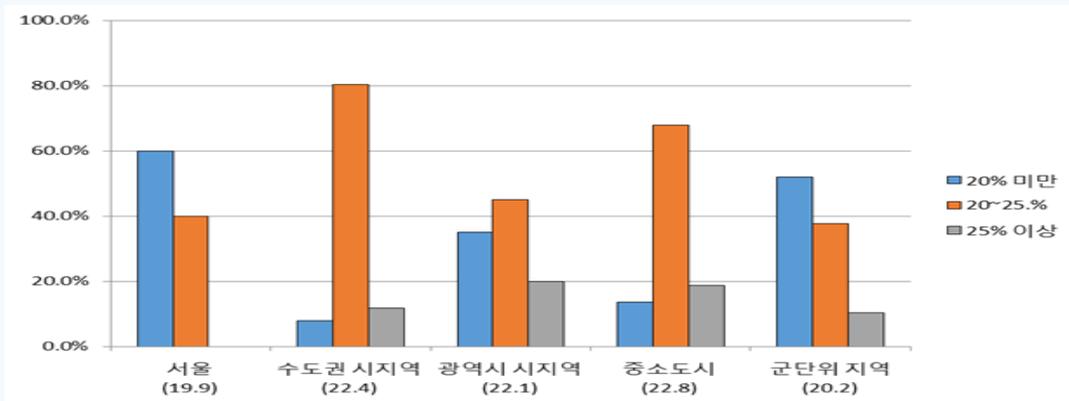
2) 각 연령집단 중 신혼부부의 비율을 의미하며, 그러므로 제시된 수치의 합이 100%이 아님

자료: 통계청, 2015년 신혼부부 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.

2) 출산통계적 의미에서 신혼부부 여성의 비율은 15~49세 여성 인구 중 신혼부부 여성의 비율을 나타내어야 하지만, 이 글의 분석에서는 그 대상을 25~39세로 한정하였음. 그 이유는 첫째, 신혼부부 여성의 비율은 연령 구조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 비율이 매우 낮고 출산율이 매우 낮은 24세 이하 및 40세 이상 인구에 의해 신혼부부 여성 비율이 갖는 출산에 대한 의미가 왜곡될 수 있어서임. 둘째,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는 사례 수 20건 이하의 통계 결과에 대한 반출을 금지하는데, 인구 규모가 작은 일부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이들 연령대의 신혼부부 여성 수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임.

- 시·군·구별 신혼부부 여성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분포의 차이를 보이는데, 서울과 일부 광역시 지역 및 농촌 지역에는 신혼부부(여성) 비율이 매우 낮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(그림 5).
  -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의 비율이 높은 서울 및 일부 광역시 지역에 신혼부부(여성) 비율이 낮은 곳이 많은 것은 젊은 여성 인구에서 미혼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임.
  - 반대로 농촌 지역의 신혼부부(여성) 비율이 낮은 것은 인구 고령화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는데, 많은 군 단위 지역의 인구구조가 20~40대 청장년 연령대에서조차 연령이 낮아질수록 인구 비율이 낮아지는 역삼각형 구조를 보이기 때문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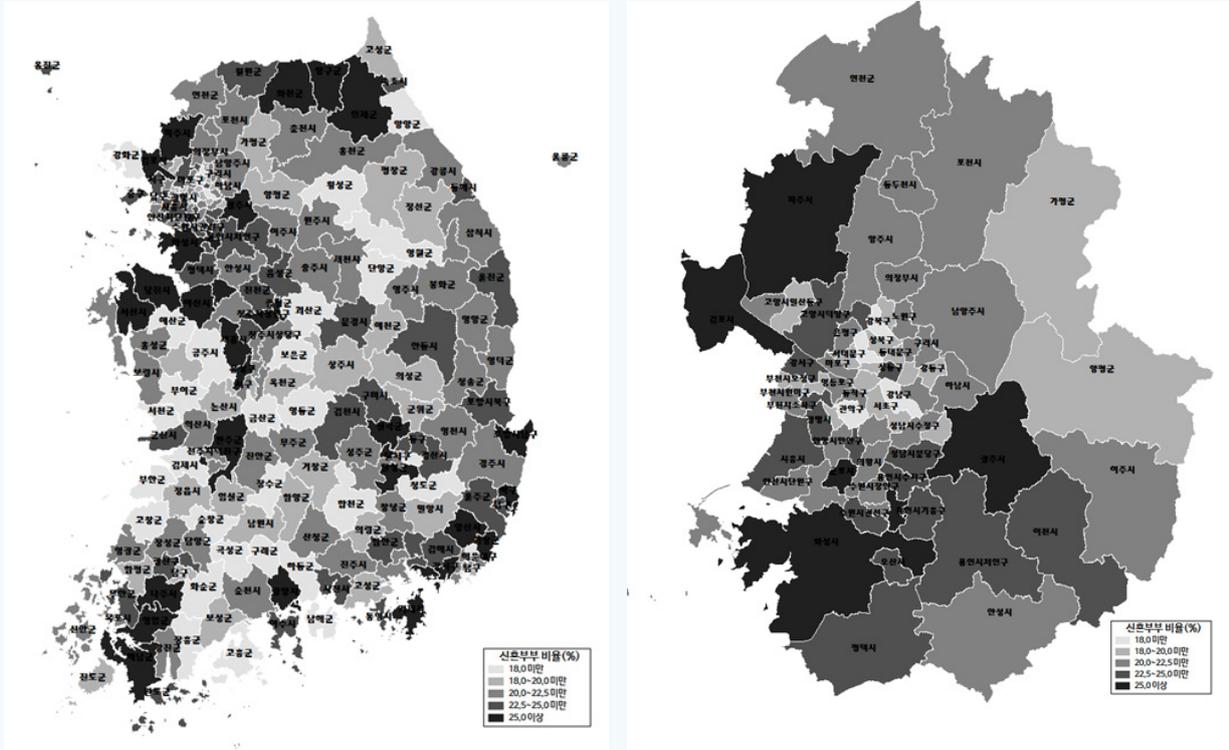
[그림 5] 지역별 신혼부부(여성) 비율 분포



주: 1) 외국 국적 여성 제외.  
 2) 인천의 시 지역은 수도권 시 지역에, 세종시는 광역시 시 지역에 포함됨.  
 3) ( ): 지역별 평균 신혼부부 여성 비율 (%)  
 자료: 통계청, 2015년 신혼부부 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.

- 신혼부부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지역들은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일어난 신도시 지역, 지역 내 일자리 상황이 나은 도시 지역, 젊은 군인 가족이 많이 사는 군부대 지역 등으로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의 비율이 높음.
  -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신도시 지역: 부산시 강서구(37.8%)와 기장군(31.6%), 세종시(31.0%), 경기도 광주시(27.2%)와 화성시(26.5%) 등
  - 지역 내 핵심 산업지역: 경남 거제시(31.8%), 충남 당진시(29.7%), 울산 동구(28.6%)와 북구(28.4%), 충남 아산시(26.5%)와 서산시(26.1%), 전남 광양시(26.4%), 경남 양산시(26.1%) 등
  - 군부대 지역: 강원도 화천군(29.1%), 인제군(27.6%), 양구군(25.9%), 철원군(24.4%) 및 경기도 연천군(21.7%) 등
  - 이상과 같은 주택 및 산업 특성은 지자체의 정책 범위를 넘어서는 구조적 요인들임.

[그림 6] 주 출산연령(25~39세) 여성 중 신혼부부 비율 (전국, 수도권), 2015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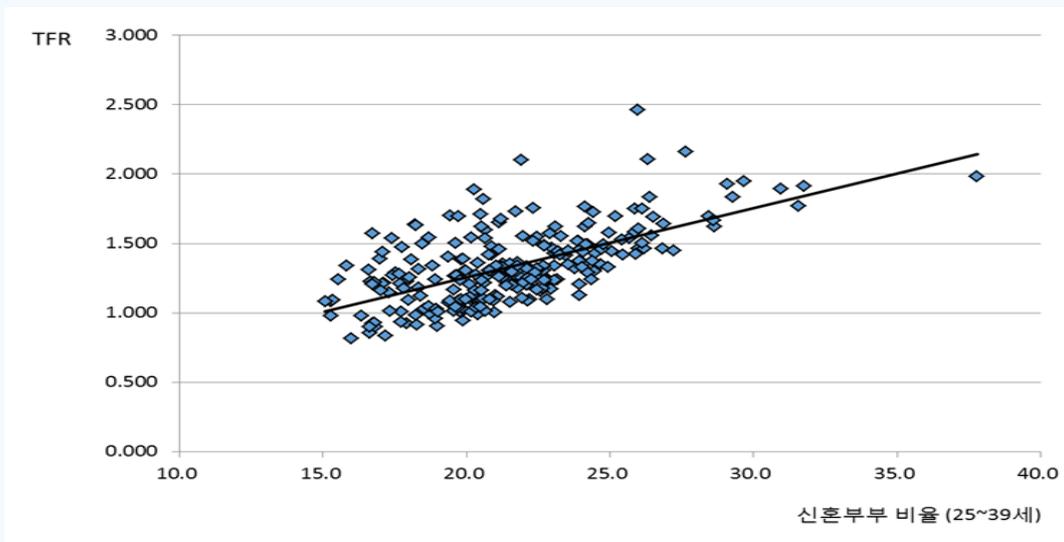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2015년 신혼부부 통계 원자료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.

-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 가운데 최근 인구 유입이 일어난 곳, 서울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낮은 지역에서 신혼부부 비율이 높게 나타남.
  - 수도권 내 서울 비인접 인구 유입 지역: 광주시(27.2%), 수원시 영통구(26.8%), 화성시(26.5%), 김포시(26.2%), 파주시(25.1%) 등
  - 서울 내에서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: 강서구(23.9%), 구로구(22.9%), 성동구(22.8%), 노원구(22.2%), 영등포구(22.1%), 은평구(21.0%) 등
- 이상과 같은 지역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의 신혼부부 비율이 주거와 관련된 신혼부부의 이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함.

## 4. 지역 내 신혼부부 비율과 출산율

- 앞서의 분석에서 시·군·구 지역의 25~39세 여성 인구 중 신혼부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이는데, 이 지역 합계출산율과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비율과 출산율의 강한 상관성이 확인됨.

[그림 7] 신혼부부 비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(전국, 2015년)



자료: 통계청, 2015년 신혼부부 통계 원자료와 인구동태(출생)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.

- 지역별 출산율 차이에서 신혼부부(여성) 비율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별로 신혼부부(여성) 비율을 표준화하여 일반 합계출산율과 신혼부부 비율 표준화 합계출산율<sup>3)</sup>을 비교하였음.
- 비교 결과 평균 합계출산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, 지역 간 출산율의 전체적 편차를 의미하는 밀집도(변동계수, coefficient of variation)는 일반 합계출산율에 비해 표준화 출산율이 약 20.7% 더 낮아지는 결과를 보임.
  -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밀집도가 무려 60.8% 감소하여 수도권 지역 간 출산율의 차이는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함.

3) 각 지역의 20~49세 연령대 여성 중 신혼부부(여성) 비율이 전국의 신혼부부(여성) 비율과 동일하도록 하여 다시 산출한 가상의 합계출산율. 각 지역 20~49세 내 연령집단(5세 간격)별로 신혼부부(여성)의 연령별 출산율과 비신혼부부(여성)의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하고, 이를 각각 전국 수준의 신혼부부(여성) 인구와 비신혼부부(여성) 인구에 대입하여 그 합으로 표준화 합계출산율을 계산하였음. 그러므로 산출된 표준화 출산율에는 15~19세 여성의 출산은 포함되지 않았음.

〈표 1〉 신혼부부 비율 표준화 이후 출산율 분포의 변화

	일반 합계출산율		표준화 출산율	
	평균	밀집도 <sup>2)</sup>	평균	밀집도 <sup>2)</sup>
전국 <sup>1)</sup>	1.332	0.198	1.323	0.157
수도권	1.177	0.153	1.197	0.060
시·구 지역	1.271	0.180	1.252	0.131
군지역	1.473	0.194	1.485	0.140

주: 1) 전국 시·군·구의 평균값으로 전국의 출산율과 차이가 있음  
 2) 밀집도 = 표준편차 / 평균  
 자료: 통계청, 2015년 신혼부부 통계 원자료와 인구동태(출생)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.

〈표 2〉 신혼부부 비율 표준화에 따른 출산율의 변화

		일반 합계출산율	표준화 출산율	
상위 10개 지역				
1	전남 해남군	(3)	충북 제천시	(129)
2	강원 인제군	(28)	충북 청주시 상당구	(111)
3	전남 영암군	(12)	전남 해남군	(1)
4	전남 장성군	(4)	전남 장성군	(4)
5	부산 강서구	(84)	경남 산청군	(10)
6	충남 당진시	(55)	전북 진안군	(13)
7	강원 화천군	(56)	전남 보성군	(22)
8	경남 거제시	(83)	전북 임실군	(32)
9	세종시	(57)	전남 함평군	(33)
10	경남 산청군	(5)	전남 구례군	(43)

주: ( )는 표준화 이후/이전의 순위임.  
 자료: 통계청, 2015년 신혼부부 통계 원자료와 인구동태(출생)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.

- 신혼부부 비율 표준화 출산율의 지역별 순위에서는 매우 큰 변화가 발생하여 지역별 출산율에서 신혼부부의 비율이 상당한 결정력을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됨.
  - 예를 들어 2015년 합계출산율이 전국 9위였던 세종시는 표준화 이후 57위로 하락하였으며, 반면 충북 제천시는 129위(합계출산율)에서 1위(표준화 출산율)로 급격히 상승함.
  - 중간 합계출산율 지역들의 변동은 더욱 두드러지는데, 예를 들어 충북 청주시 청원구(-223위), 경북 청도군(+172위), 충북 청주시 흥덕구(-164위) 등 15개 시·군·구 지역은 순위에서 무려 100위 이상의 큰 변동을 보임.

## 5. 결론 및 시사점

- 이상의 분석 결과와 같이 출산의 상당 부분이 혼인 5년차 이하의 신혼부부에게서 나타나며, 이에 따라 지역 내 주 출산연령대 여성 인구 중 신혼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역의 출산율 수준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.
  -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출산율이 출산력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지역의 인구구성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라는 사실을 제시함.
- 신혼부부 분포는 일자리(대규모 산업시설 위치 지역)나 주택(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지) 등 구조적 환경들에 큰 영향을 받는데, 이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범위를 넘어서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음.
- 그러므로 지역별 출산율 분석에서는 인구학적·지리학적 맥락을 반영해야 하며, 지역의 합계출산율을 단순 나열하여 비교(예: 출산 지도)하게 되면 출산력에 대한 실태를 왜곡하여 이해할 수 있음.
  - 비슷한 맥락에서 시·군·구의 합계출산율을 지자체의 정책 효과 결과로 환원하여 해석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, 신혼부부 흡인 요인인 대규모 산업단지나 주택단지같이 기초자치체 수준의 정책 범위를 넘어서는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.
- 지역의 출산 지원 정책은 단순히 출산 및 양육 관련 물품과 서비스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(지방)의 종합적 발전을 고려하여 주거, 일자리, 지역개발, 인구이동 등을 반영한 인구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.
- 마지막으로 이 글의 분석 결과는 출산 지원 정책에서도 혼인 기간을 반영한 연령 기준 제한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음.
  - 출산과 관련한 정책 평가 및 학술 연구 분석에서도 혼인 기간이 미치는 효과를 반영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줌.

집필자 이상림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/ 이지혜 인구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 
문의 044-287-8386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 
[www.kihasa.re.kr](http://www.kihasa.re.kr)

**KIHASA**  
한국보건사회연구원  
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Policy